

# 생멸문서 진여문에 들어가는 법



## 지안 스님의 <대승기신론> 강설

직지사 한문불전대학원 원장

진여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설명한 다음 본문에서는 생멸문에서 진여문으로 들어가는 방법에 대하여 언급한다. 기신론에서 말하는 완전한 깨달음(究竟覺)이란 진여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설명되어 있다. 먼저 오음(五陰)과 육진(六塵)에 대해 추구해 볼 것을 권장한다.

오음이란 오온(五蘊)의 구역으로 인간을 구성하는 다섯 가지 요소를 말한다.

• 색(色) : 물질적인 요소로 형체와 색채를 가지는 것이다 범어 rupa를 번역한 것으로 파괴 되졌끔 되어 있다는 뜻이 있다. 인간의 육신을 가리키는 말이다.

• 수(受) : 감수기능이다. vedana가 어원이며 아는 작용 또는 기능이라는 뜻이다. 육근에 (六根)에 의하여 일어나는 것이다.

• 상(想) : 상상(想像)기능이다. samana가 어원이다. 무엇을 가지고 안

다는 뜻으로 인간의 의식에 일어나는 표상작용이라 할 수 있다.

• 행(行) : 움직임을 뜻한다. 어원 samskara는 무엇을 가지고 한다는 뜻을 가진 말이다. 모든 인간의 행동이 행에 의하여 일어나며 또 그 행동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결단을 하는 것도 행이다.

### '나'는 오온의 화합물에 불과 다른 존재와 관계 맺어 존재

• 식(識) : 의식기능의 중추인 것이 식이다. 어원 vijna는 '분별한다' 또는 '조개서 안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 식(識)을 여러 가지로 분류 설명하는데 본능적인 천박한 지각적 단계에서 절대적 자유와 온갖 덕의 원천인 진여에 이르기까지 깊고 얕음의 차이를 나타낸다.

이 오음은 결국 인간과 인간 주변을

설명하는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또 육진(六塵) 경계 곧 모든 객관의 대상세계는 그 자체로서는 의식이 없는 존재이며 마음에 의하여 의식되어지는 대상에 불과하다. 그리고 마음이라는 것도 무슨 형상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사망으로 찾아보아도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다.

그렇다면 중생들이 왜 진여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그 이유를 본문에서는 그릇된 집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릇된 집착(邪執)은 나에 대한 고집으로 이른바 자아관념에 속박되는 것을 말한다. 아견(我見) 때문에 진여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본문에서는 아견을 인아견(人我見)과 법아견(法我見)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인아견이란 쉽게 말하면 인간으로서 자기 존재에 대한 이기적 고집을 말하며, 법아견은 외부의 객관적 존재인 사물에 대하여 실체가 있는 것인 양 생각하고 믿는 것이다.

'나'라는 인간 존재는 기실 오온(五蘊)의 화합물에 불과하여 색, 수, 상, 행, 식 어느 것도 영구불변의 실체는 없는 것이다. 독립된 존재가 아니고 다른 것과의 관계 하에서 성립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뜻에서 불교에서는 일찍

이 무아설(無我說)을 내세웠다. 그러나 우리는 '나'라는 관념 속에서 모든 것을 이리저리 사랑하고 있다.

초심자들이 불법(佛法)을 배우면서 빠지기 쉬운 함정은 불법의 참뜻을 잘못 알아듣는 것이다. 본문에서는 인아견의 다섯 가지 사례를 말하고 있다. 가령 여러 경전 속에서 여래의 법신이 적막한 허공과 같다는 말을 듣고 그 말이 집착을 깨뜨리기 위한 것인 줄 알지 못하고 허공이 바로 여래의 본성이라고 생각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 이 경우 허공이라는 것은 인간의 주관적인 분별지가 식별해 낸 한 모드(mode)에 불과한 것이며, 그 자체로서 어떤 실체성을 가진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모든 외부 세계에 나타나는 현상은 인간의 주관적인 생각 곧 망심이 식별한 것이며 어디에도 '나'라는 실체를 가진 존재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존재는 스스로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다. 만약 인간의 혼돈된 주관적인 생각이 없어지면 그때 모든 상대적인 존재양식은 사라지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오직 참되고 한결같은 진여의 마음만이 온 우주에 가득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을 진여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하였다.



## 항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 영혼에 대해

<중론(中論)>과 <백론(百論)>의 무아(無我)부분을 인용해 올린 글에 대해 댓글과 전화로 묻는 등 혼란스러워하는 사람이 많아 답합니다.

먼저 묻습니다. 영혼이 있어 윤회(輪?)를 거듭한다면 세양위의 영혼과 코끼리의 영혼이 크기와 부피가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물론 영혼이 물건이 아닌 이상 크기와 부피를 따진다는 게 우습게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편의상 따지는 질문이고, 이에 대한 대답은 '같다'라고 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같지 않고 '다를 것'이라고 답한다면, 세양위는 세양위로 거듭 태어나야 하고 코끼리는 코끼리로서의 윤회를 거듭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은 후 49일에 이르러 49세를 치르게 되는데 그 이유는 49일이 지나면 영가의 지은바 카르마(Karma)에 따라 윤회를 거듭하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윤회의 주체가 사람뿐이 아닌, 축생등의 모든 생명체 있는 것들이 죽은

은 특별히 누리거나 초능력이 있어 윤회를 멈추고 있었다고 공색하게 답하지는 않겠지요. 이미 상식적으로 누구나 알고 있는 냉동 정자은행에 대해서도 살펴야 할 문제입니다. 냉동된 정자는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죽음에서 부활한 누구처럼 난자를 만나면 새 생명이 됩니다.

해외에서 머문 15년 중 인도에서 머물던 3년 동안 모기, 빈대, 이, 벼룩 등 해아릴 수 없이 살생하며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모기귀신, 빈대귀신, 벼룩귀신의 괴롭힘을 단 한 차례도 당한 적이 없습니다. 이쯤해서 부처님의 말씀으로 마무리 하려합니다.

부처님은 <잡아함경>과 <상응부경>에서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장미꽃은 장미 줄기나 잎이나 대공이나 뿌리에서 찾을 수 없다. 뿌리와 줄기와 대공이와 잎이 건강할 때, 그리고 그 기능이 작동될 때 장미꽃이 피어오르는 것이며 햇빛과 흙, 수분과 바람, 영양분이 알맞게 골고루 갖추어져 있을 때 장미 줄기는 자라고 줄기가 건강할 때 장미꽃도 만날 수 있는 것이다."

## 연기법칙과 무아론은 하나의 진리 무엇이 실제로 남아 윤회 거듭하는가

후 49일이 지나면 생(生)을 바뀌며 윤회를 거듭한다는 논리일 것입니다.

북인도의 스리나가르에는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단지역이 있습니다. 이곳엔 만년설이 그대로 덮혀 있고 양국의 병사들이 더러는 농담도 건넌 만큼, 총을 겨누고 있으나 우리의 남북대치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이곳에서 원주민들이 산삼을 캐오듯 녹아내리는 만년설의 빙벽에서 도롱뇽, 개구리 등이 갇혀 있는 얼음덩이를 들고 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매우 비싼 가격으로 팔고 있었습니다. 얼음덩이를 조심스럽게 떼어내, 마침내 얼음 속 개구리가 양지바른 곳에서 수만 년의 잠에서 깨어나 움직이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실지렁이를 준비해 개구리에게 주면 뱀류 실지렁이를 먹기까지 합니다.

이쯤에서 묻습니다. 만년설의 얼음덩이에서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얼어 죽어 있던 개구리가 얼음이 녹고 주변 환경의 변화와 조성에 의해 거뜬하게 되살아났습니다. 49세를 천 번, 만 번, 십만 번 치러야 할 시간적, 공간적 의문 부호는 무엇이라고 답하겠습니까?

냉동 상태로 죽어있던 개구리의 영혼

사람의 존재도 눈·귀·코·입·몸·뜻이 색깔과 소리, 향기와 맛, 느낌과 분별의 작용에 의해 생각의 윤회를 거듭할 뿐 오온(五蘊) 십이처(十二處) 십팔계(十八界)의 기능이 사라지면 사람의 존재도 사라짐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육체구조는 과학과 의학이 발달·발전해도 베일에 깊이 가려 있으며, 정신세계 또한 초능력이라는 과대포장으로 신비주의로 몰아가는 경우도 종종 있게 됩니다. 그러나 면밀히 원인을 살펴보면 필연적 조건과 상호의존적 연계작용이 있는 것입니다. 초능력 같은 기적을 몰고 온다는 일부 보도 등은 정신분열적 환상일 경우가 허다합니다.

결론적으로 연기법칙(緣起法則)과 무아(無我)는 둘이 될 수 없는 하나의 진리입니다. 사람의 신체구조는 물, 바람, 불, 흙 기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기운이 서서히 기능을 상실해가면 뇌 작용과 신경세포도 멈추게 됩니다. 온갖 작용과 기능이 멈춘 상태에서 무엇이 존재의 실체로 남아있어 윤회를 거듭한다는 것인지 살피고 또 살필 일입니다. 무아(無我)가 정립되지 못하면 영혼의 뜻으로 윤회의 수렁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 보살의 자비심은 중생을 위한 것



## 시인 도정 스님이 풀어쓴 <대장부론>

⑬ 시주의 주제는 누구인가

菩薩法身不依飲食而得存濟。大悲為食菩薩身存。悲心如火。欲施如飢。施與好食。菩薩樂與無有厭足。悲如大海施如沃焦。救濟心為水如沃焦吞流。欲向菩提以眾生為伴悲心為體。施無厭足如海吞眾流無有止息。

(보살법신불의음식이득존제. 대비위식보살신존. 비심여화. 욕시여기. 시여호식. 보살락여무유염족. 비여대해시여옥초. 구제심위수여옥초탄류. 욕향보리이중생위반비심위제. 시무염족해탄중류무유지식.)

一切眾生來 各各索異物 (일체중생래 각각색이물) 菩薩皆施與 心無有疲 丁 (보살개시여 심무유피견) 諸苦惱眾生 盡皆為除滅 (제고녀중생 진개위제멸)

設有未除者 心無有厭足 (설유미제자 심무유염족)

번역 보살의 법신(法身)은 음식과 먹을 것을 의지하지 않지만, 구제하는 것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큰 자비심을 먹을 것으로 삼아 보살은 자신이 존재하는 것이니, 자비심은 불갈고, 보시하고자 하는 마음은 주린 것 같아야 합니다.

베풀되 좋은 음식으로 베풀고, 보살은 주는 것을 즐거워하며 싫어하거나 만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자비심을 큰 바다처럼 베풀되 메마른 곳에 물을 대듯이 해야 합니다. 구제하는 마음은 물이 메마른 곳을 적시듯 감싸고 흘러야 합니다. 보리심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중생을 동반자로 삼고 자비심을 근본 바탕으로 삼아야 합니다. 보시하되 싫어하거나 만족함이 없어야 하며, 바다가 못 강물을 삼기듯이 그만두거나 쉬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일체 중생이 와서 각각 다른 물건을 찾거늘, 보살은 모두 베풀어 주면서도 피로하거나 권태로움이 없습니다.

중생이 모든 고통과 번뇌를 모두 다 제거하고 없애도록 돕되, 설령 없애지 못한 이가 있어도 마음에 싫어하거나 만족하여 그만두지 않습니다.

### 해설

이 부분은 시주체품제삼(施主體品第三), 즉 '시주의 주제에 대한 품'의 결론이다. 앞서 설명 했듯이 중생이 중생인 것은 번뇌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다. 중생의 근본실체는 바로 고통과 번뇌다. 그 고통과 번뇌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바로 욕구(欲求)에 빠졌기 때문이다. 중생은 채우고 채우고 채워지지 않는 욕구의 습성을 지닌 그 미혹된 마음을 지칭하는 것이리라.

그래서 제바라보살이 바라보는 중생은 가련하고도 불쌍한 존재다. 늘 욕망과 필요에 굶주린 존재다. 중생은 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울면서 기도하고 바라다.

그러면 보살(菩薩)은 그 필요와 욕망을 한없이 채워주려 애쓰는 존재다. 우는 아이에게 젖을 주듯이, 배고픈 것이 안타깝고 가련하여 견디질 못한다. 그리하여 보살은 모두 베풀어 주면서도 배부른 아기를 보면 기쁨에 겨운 임마가 되어 배부른데 결코 피로하거나 권태로워 하지 않는다.

그러하여, 설령 중생이 고통과 번뇌를 다 없애지 못할지라도 결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다. 결코 중생을 포기하지 않는다. 스스로 그만하면 됐다는 생각과 최선을 다했으니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마음먹지 않는다. 바다를 다 파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무한한 책임감을 가진다.

눈물로 감탄하노니, 얼마나 위대한가. 아, 보살(菩薩)의 자비로운 마음이 시어!

# 영남범패학인모집

본 원에서는 영남범패의 계승과 보존을 위하여 서울 및 경기지역에 교육원을 개설하였습니다. 영남범패를 탁마할 학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동참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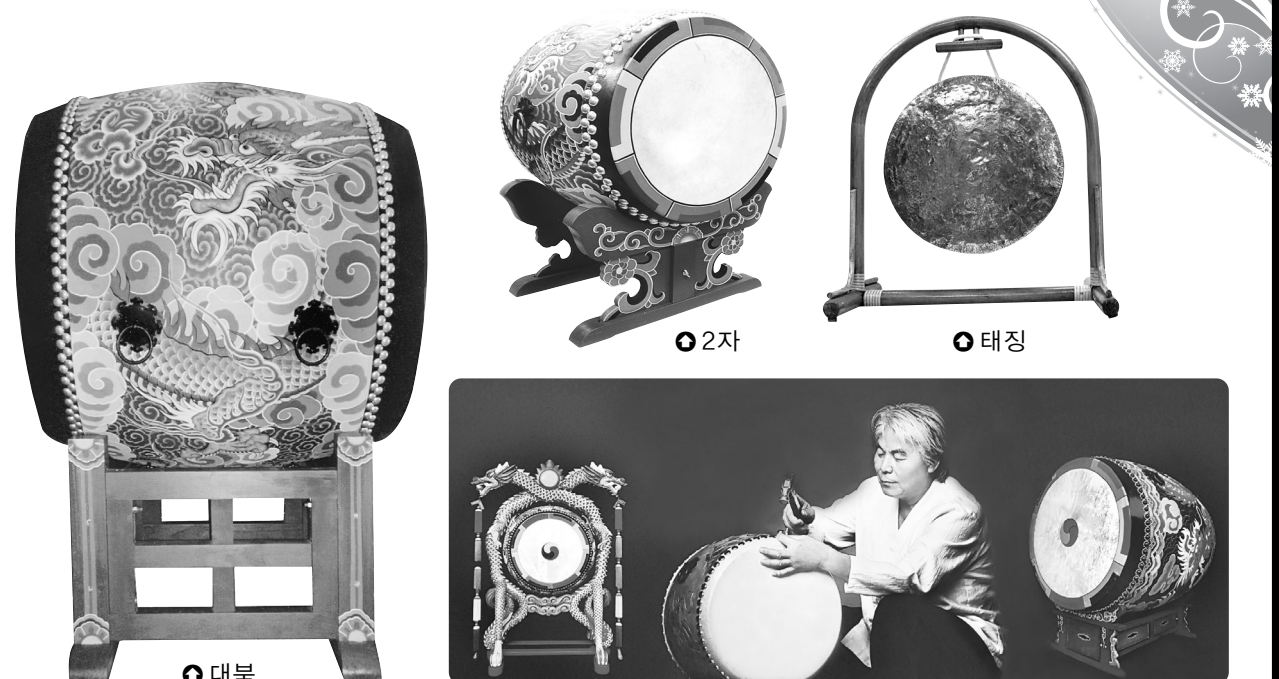
## 아 래

- 개강일시 : 2016년 5월 26일 <목요일> 오후 3시
- 교육장소 : 길지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포공원 1로 49 506호)
- 수 강 일 :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 교육기간 : 6개월 과정
- 교육내용 : ① 상응의식 및 재의식 ② 사물다루는 법 ③ 바라 및 승무작법, 화청 등
- 수강자격 : 식발염의한 출가승려에 한 함
- 수 강 료 : 월 10만원 <교재비 별도>
- 준 비 물 : 필기도구 및 녹음기
- 문의전화 : 031)483-5528 (길지사 석문스님)

## 사) 대한불교불음원 경기교육원

#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대법고·법당천도법고·태징·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764-2159 / 010-5264-3906  
경기도함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계좌번호 :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www.yangjikukak.com

대한명인 제 14-406호 대고제작



## 진장불교 근본도량 공덕원 신축불사 낙성대법회

1월시 불기 2560(2016)년 4월 25일 월요일 오전 11시

삼보에 귀의하옵고 공덕원이 개원 35주년을 맞이하는 올해에, 불보살님의 가피와 그동안 인연 닿은 신도님의 동참으로 용호동에서 대연동으로 이전하는 신축불사의 낙성대법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23교구 관음사 조실 종호 큰스님을 모시고 제방의 스님들, 불자님들과 함께 낙성불사의 기쁨을 나누고자 하오니 무부 동참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고 선연공덕을 이루어 주시길 발원합니다.

불기 2560년 4월 좋은날에...

주지 승주(효선) 정해 합창

>>> 오세는 길 부산광역시 남구 진남로69번길 8 (대연동) 뚝골성당 위  
• 지하철 : 2호선 뚝골역 하차, 2번 출구 도보로 500m  
• 버스 : 22, 24, 27, 40, 41, 42, 83, 83-1, 108, 138번

진장불교 근본도량 공덕원 www.gongdukwon.net  
부산광역시 남구 진남로69번길 8(대연동) 전화 : (051)625-3886~7